

강원영상위원회, 2020년도 지원사업 성료

- 드라마<사랑의 불시착> 등 총 66편의 영상물 촬영지원 유치
-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17편 지원, 도내 30억 9천만원 소비
- 코로나19 지원 사업 “강원을 찾아라” 시행

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(위원장 방은진)는 2020년도 강원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 사업들의 추진실적을 발표했다.

2020년도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지원 사업으로 영화<킬미나우>, 드라마<사랑의 불시착>등, 올 한해에만 218편의 촬영지원을 하여 그 중 66편의 영화와 드라마 등의 도내 촬영 유치를 완료하였다. 이는 전년도 121편 지원, 62편 촬영 유치 완료보다 상향된 수치로,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시장이 움츠러든 것에 비해 비교적 큰 성과를 이루었다.

주요 지원작품으로는 영화<자백><킬미나우><보호자><대외비><킬링로맨스>, 드라마tvN<사랑의 불시착> JTBC<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> tvN<낮과밤> tvN<철인왕후>등이 있다.

또한 강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영화와 드라마 등, 총 17개 작품을 선정 및 지원하였으며, 이와 관련하여 정산된 도내 소비액만 30억 9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, 도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.

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로케이션 DB구축 사업인 “강원을 찾아라” 를 신설하여, 도내 100명의 영화인들을 지원함으로써,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내 영화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.

그밖에 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결과, 극영화 1개 작품, 다큐멘터리 1개 작품을 지원하였으며, 이밖에도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“강원작가의 방” 을 운영하여 극영화 9개 작품, 연극 5개 작품의 지원을 완료하였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원영상위원회 영상지원팀 대리 김상호(☎033)240-13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